

【 2019.2.12(화) 강원일보 】

◇오인철강원건설단체연합
회장은 12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리는 2019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주재.



공공부문 공사 발주액 2조4936억원

지자체·공공기관 등 63곳 4160건
오늘 춘천시 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올해 발주하는 건설 및 설계 용역 발주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 발주 규모는 총 4160건 2조4936억원이다. 이중 건설공사가 3380건 2조3527건, 설계용역이 780건 1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공발주에 총 63개 기관이 참여한다. 18개 시·군이 2400건 9923억원, 도가 240건 3298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발주금액 면에서 전체의 절반 규모인 2640건 1조322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389건

2698억원, 강원도교육청 608건 2654억원, 원주국토관리청 231건 2251억원, 동해해양수산청 51건 1840억원, 한전 강원본부 143건 71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원도개발공사 24건 491억원, LH강원본부 8건 365억원, 도로공사 강원본부 34건 314억원, 농어촌공사 강원본부 7건 263억원, 수자원공사 12건 92억원, 대한석탄공사 8건 20억원, 가스공사 강원본부 5건 17억원 등이다.

한편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12일 오후 2시 춘천 스키컨벤션 웨딩홀에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건설·계약담당공무원,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건설공사 및 설계 용역 발주계획설명회’를 갖고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춘천시 “당림리 가로질러야” vs 가평군 “가평 통과해야”

제2경춘국도 노선 갈등 점화
지역발전 연계 주도권 싸움 치열
각의회 나서 결의문·건의문 발송
예산절감 효과 춘천시 안 합리적

속보=제2경춘국도 사업이 강원도 1순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본지 1월 30일자 1·3면 등)돼 노선안 협의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의의 시작도 전에 춘천시와 가평군이 노선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오는 6월까지 제2경춘국도 사업비 적정성과 노선안



협의 및 추가 대안 등을 모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경기도 남양주와 춘천 당림리를 잇는 제2경춘국도(32.9km) 사업 노선과 관련, 춘천시는 금남IC에서 당림리를 가로

의한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결의문'을 원안 가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에 발송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2경춘국도가 처음 계획했던 남양주와 춘천 당림리를 가로지르는 안으로 조기 착공돼 남양주와 춘천 산업단지 개발사업, 삼악산 로프웨이와 레고랜드 조성사업 등 개장 시기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수 시장은 12일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 춘천시 안 관철과 제2경춘국도와 외곽 미착공 구간인 용산-당림(16km) 연결을 촉구한다.
가평군의회는 강원도를 압박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을 최근 도에

접수, “이 사업은 가평 지역발전엔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 커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했다. 제2경춘국도 노선안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된 가운데 노선안 확정 관건은 사업비와 지역개발과 연계한 적합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춘천시 안은 8600억원, 가평군 안은 1조2000억원 규모로 각각 추산됐다. 예산 절감 효과는 춘천시안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이상민 위원장은 “가평군 제시안은 길이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도 춘천시안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 시민사회단체는 내주 제2경춘국도의 춘천 직통 연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박지은-오세현